

4월 1주
일생일대 중요한 당부

- 본문 말씀: 열왕기상 2장 1~3절 (4월 5일 본문)
- 포인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도와주세요.

≡ 1. 찬양

(새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불드사

≡ 2. 기도

저희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세요.

≡ 3. 말씀

열왕기상 2장 1~3절을 함께 읽습니다(말씀을 3번 읽으세요).

*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반복해서 읽으면 내용을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역개정판 성경>

1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2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3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우리말성경>

1 다윗이 죽을 때가 다가오자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했습니다. 2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됐다. 그러니 너는 강해지고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 3 그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켜 그분의 길을 걷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의 *규례와 계명과 법도와 증거들에 대한 말씀들을 지켜라.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모든 일이 잘될 것이다.

본문 이해

다윗은 죽을 날이 가까워지자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어요. 첫째는 강해져서 대장부가 되고, 둘째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잘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흥망은 하나님께 달려 있기에 다윗은 '말씀 순종'을 강조했어요.

□ 인도자를 위한 본문 이해

다윗에게는 왕위 계승이 유력해 보이는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큰아들 암논은 셋째 압살롬에게 살해당했고, 둘째 길르압(다니엘, 대상 3:1)은 이미 죽은 듯하며, 셋째 압살롬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반역하다가 죽임당했어요(삼하 3:2~4; 대상 3:1~2). 그래서 살아 있는 아들 중 가장 서열이 높은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왕위를 계승할 유력자로 여겨지고 있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나단 선지자를 통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길 원한다고 하셨습니다(삼하 12:24~25). 다윗은 하나님 뜻을 따라 솔로몬을 왕으로 지명했고 이를 공식적으로 선포했어요. 나이가 많아 죽음을 앞두고 있던 다윗은 왕위를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야기들을 해 주었어요. 아도니아를 비롯해 그를 도운 군대 장관 요압이나 사울의 친척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에 솔로몬이 다스릴 이스라엘은 그리 편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대장부가 되라고 용기를 주었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해 주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목숨이 위험할 때 그에게 도움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만은 꼭 붙잡고 있었기에 왕이 될 수 있었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잘될 것이다.”라고 말해 준 거예요. 이는 다윗이 그의 인생에서 경험한 최고의 조언이자 최선의 삶을 사는 방법이었어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렐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매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삼하 3:2~4).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렐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매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대상 3:1~2).

“다윗이 그의 아내 밋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았을 때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삼하 12:24~25).

4. 나눔

1) 다윗이 죽을 날이 가까워지자 자신에 이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한 것은 무엇인가요?(3절)

■ 저학년

다윗왕이 아들 솔로몬에게 꼭 해 주고 싶었던 말은 무엇인가요?(2~3절)

■ 유아·유치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전해 준 중요한 말은 무엇인가요?(2~3절)

□ 질문 가이드

앞으로 솔로몬은 왕으로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지혜롭게 헤쳐 나가야 해요. 다윗은 왕위를 물려준 솔로몬에게 왕으로서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신앙 자세를 알려 주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나누며, 각자에게 있어야 할 올바른 신앙 자세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 보세요.

□ 인도자를 위한 해설

수많은 정적을 뒤로한 채 왕이 된 아들에게 다윗은 많은 이야기를 해 주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죽음이 가까워 기력도 없고 힘에 부치는 상황이라 무엇보다 솔로몬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해야 했어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말했어요. 정적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고 강해지라는 거예요. 그다음 당부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철저히 순종하라는 것이었어요.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두 잘될 거라고 말해 주었어요. 이것은 다윗의 경험에 비추어 가장 중요한 권면이었을 거예요.

2) 부모님이 자녀에게 사랑으로 권면하고 싶은 것을 말해 보세요. 이어서 자녀가 부모님께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을 말해 보세요.

■ 저학년

부모님과 자녀가 서로에게 꼭 말하고 싶은 당부를 나눠 보세요.

■ 유아·유치

부모님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 질문 가이드

삶의 마지막 순간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꼭 당부하고 싶었던 말을 전한 것처럼, 서로를 위한 당부와 축복의 말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지시하거나 불평하는 말이 아니라, 사랑과 이해와 용납과 존중의 마음으로 대화하세요.

□ 인도자를 위한 해설

다윗은 솔로몬과 더는 함께할 수 없어요. 다윗은 조만간 죽고 솔로몬은 왕의 길을 홀로 걸어가야 해요. 그런 아들에게 꼭 필요한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부모님도 아이들과 평생 함께할 수 없어요. 그렇기에 아이들 마음에 중요한 것을 심어 주어야 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는 것이지요. 또한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예요. 자녀가 속마음이나 혹은 부모에 대한 생각을 편하게 나눌 수 있도록 대화를 이끌어 보세요.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가치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기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복되다는 것을 함께 나누세요.

≡ 5. 감사하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담긴 성경을 주시고, 예배와 큐티를 통해 하나님 뜻을 알고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세요.

≡ 6. 기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복된 일임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의 마지막 당부를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즐거이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저희 가족이 되게 해 주세요.

-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